

생육과 번성의 명령

창세기 1:27-28, 베드로전서 1:1-9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21차 세계선 교대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모든 교단에 속한 성도들, 특히 우리 참사랑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된 것을 감사하며 축복한다. 이번에 57개국에서 725명의 선교 사님들이 참석했고, 이분들을 기도로 섬기고 차세대 선교사로 지원한 램프들이 143명이 있었다. 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선교사들이 될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대회 전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통계에 보니까 4763명이었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 길이 기록되어야 할 일이다. 21년 째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13억 원 정도 교우들이 헌금을 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대회를 잘 마쳤다.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올 한 해 우리교회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교단의 주제를 따라서 다시 잡은 대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다. 주일학교가 없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다 해서 언약을 다시 붙잡은 것이다. 전도운동 전체의 메시지는 제 2의 RUTC운동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후대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꼭 살펴보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후대 살리는 중요한 역사가 우리 참사랑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현실을 한 번 살펴보면, 이번에 외손자가 오금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120명이 졸업했다고 한다. 그만큼 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점점 학급이 줄어가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낳기 싫어서 안 낳는 사람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또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못 할 만큼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가 후대를 살리도록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무너져 있는 가정의 흐름, 사회의 흐름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에 집중하면서 현장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창세기 1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확인해 보자.

1.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이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 모임 속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다.

(1)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2)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것이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형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동시에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때부터 인간은 계속 저주와 죽음, 지옥의 공포,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죽는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짐착과 중독에 빠지게 된다. 정신문제로 평생 갈등하면서 평안 없이, 행복 없이 살아간다. 육신의 질병과 실패에 시달리다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 인생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후대들에게까지 이 저주를 그대로 반복해서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버린 것이다. 지금 결혼과 출산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 저주를 전달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3)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 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도록 완전히 타락해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가온 죄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인간을 그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과 영원토록 우리 마음 속에 있

기를 축복한다. 그것을 놓치면 언제라도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정말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4)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흩어진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이 이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신약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많은 세대에게, 참된 이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5) 이것을 모일 때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선포하시기 바란다. 후대를 모아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모일 때마다 이야기해주어서 각인시켜야 한다. 지난 RCA에 가서 손자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는 공부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본부메시지, 강단메시지, 기도수첩 해서 다섯 개의 메시지를 매주 녹취를 시키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 공부를 해야 하고, 영어도 부족해서 더 해야 할 텐데, 녹취를 한다고 하니, 한 편 녹취를 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린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나고, 내가 이것 하려고 미국에 왔나 싶으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안 하니가 푸시업을 시키면서 기합을 주니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시키더라고 한다. 그래서 억지로, 기합을 안 받기 위해서 억지로 했는데, 3개월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왜 목사님이 이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가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기도제목이 달라졌다고 한다. 의사 되도록 공부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싶었다. 아이가 다 자랐으니 해 줄 말이 없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니, 그게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 강단말씀을 녹취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도 전부 엎드려뱃처를 시켜야 되는가 생각을 했다. (웃음) 그것을 안 시켜서 제자가 안 나오나 싶었다. 녹취도 시키고 안 하면 푸시업도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제자가 안 나오는가 싶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후대를 모아서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모일 때마다 이야기해 주어서 각인시키는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 ① 신명기 6:4-9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서 절대 잊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앉았을 때에든지, 걸어갈 때에든지, 잠잘 때에든지,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시골 때문에 입춘대길이라고 써 붙였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에 붙였다. 우리는 문패를 붙이는데, 유대인들은 그 문패 속에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가고 들어올 때 그 문패를 붙잡고 기도한다.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맨다.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거의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정도다.
- ② 이사야 60장에도, 이 복음을 회복하도록 후대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고 했다.
- ③ 사도행전 1:14에, 이 복음을 회복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 ④ 사도행전 2:9-11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 15개 나라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제 1의 RUTC운동이라고 한다.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모이고 또 모인다. 지겹다 할 정도로 모인다. 모일 때마다 돈도 내야 한다. 아마 세계에 이런 집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야만 이 악한 세상, 악령이 준동하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전도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창세기 1:28의 말씀대로, 현장으로 흩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다.

(1) 복음을 회복하면 이때 따라오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이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정복하려 하지 않는데 되어지는 정복인 것이다. 정복한 현장을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창세기 1:27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창세기 1:28부터 하려고 하니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이 문화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기는 하는데 참 성공이

아니고 참 행복이 아닌 것을 하니까, 정복해 놓고 더 큰 실패를 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무너진 성공자들까지 살리도록, 참된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체험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체험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복하게끔, 다스리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되어지는 정복, 누리지는 누림을 누리시기 바란다. 이게 요셉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하는데도 대적하지 않았다. 싸울 힘도 없었다. 애굽 사람들과 경쟁하지도 않았다. 창세기 41:38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언제 요셉이 가장 총무를 하겠다고 지원했는가. 시험 쳤는가. 진정서를 제출했는가. 호소를 한 적 있는가. 내가 하면 잘 된다고 뽐낸 적이 있는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감옥업무를 보면 다 편해질 테니 나에게 말이라고 한 적이 없다.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 감옥의 간수들의 눈에 보였다. 이것이 참된 정복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사건이 일어난다. 왜 어린 요셉에게 감옥의 간수들이 모든 사무를 맡겼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요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작가들이 머리가 뛰어나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 장관들을 돕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없다. 그런데 작가가 어떻게 각색을 했는가 하면, 감옥에 장티푸스가 온 것이다. 죽어도 좋은 죄수들을 누가 돌보겠는가. 그런데 요셉이 이 사람들을 돌본 것이다. 죽은 사람은 묻어주고 병든 사람은 끓인 물을 먹인다. 수인성 전염병이니까 뜨거운 물을 먹어야 산다 하고 먹인다. 그들을 간호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병든 자가 나아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의 구세주가 된 것이다. 간수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자기들도 편하고 감옥도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건이 자꾸 벌어지지 않다. 장관들이 오고, 꿈을 꾸게 되고, 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되는 길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 쉬워진다. 그때부터는 현금도 교회 다니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쉬워지고 재미있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참 정복이고 진정한 누림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누림이 있다.

(2) 이 응답을 두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생육하고 변성하라는 것이다.

① 무너진 생육과 변성을 회복시키도록,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후대를 준비하라. 우리 태영아부와 어머니들이 공동육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내가 김해정 사모에게 물어보았다. 낳아서 키워 보니까 어떠냐 했더니,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안 되겠다고 했다. 결혼은 20대에 해야 한다. 그래야 해산하기도 쉽고 아이 키우기도 쉽다. 노산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이 많다. 주의 종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친구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다 일찍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든든히 서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든든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는 곳마다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빨리 결혼하라고 권한다고 한다. 시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란다.

② 단순히 육신으로 낳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도 영적 출산이다. 이렇게 해서 생육하는 것, 변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대와 제자를 통해서 변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한다.

(3)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모든 곳으로 흠어지는 것이다. 생육하고 변성하면서 흠어져야 한다. 교회의 두 개념이다. 모이는 교회와 흠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전도 현장, 선교 현장으로 자꾸 흠어져야 한다. 거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복음 선포와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파고들어야 한다. 후대 램넌트를 모으는 것이 제1의 RUTC운동이었다면, 이제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본격적으로 복지를, NGO를,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다민족과 만민을 살려내는 것이 제2의 RUTC운동이다. 문화를 회복시키고 참된 힐링을 하는 것, 이렇게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로 제2의 RUTC운동이다.

① 사도행전 2:42-47에 보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해서 날마다 현장으로 파고들었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흠어지는 자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흠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② 스테반의 환난 때문에 흠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다. 흠어진 자들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선교대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다. 전 세계 53개국에서 왔다. 어느 작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장, 외무부장관이 와서 참석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비숍(bishop ; 주교)이 왔다. 전체 연합회 회장도 왔다. 그분들

이 와서 크게 감동을 받고 복음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 세계의 문들이 계속 열려감을 보면 좀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1:19에, 환난을 당한 흠어진 자들이 안디옥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흠어진 자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흠어진 모든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만, 또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주일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은혜받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한다. 성도의 교제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기도로 인해, 찬양으로 인해 받은 힘을 가지고, 흠어져서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③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파고들어가서 흠어진 자를 찾아내고, 생육하고 변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계속 누렸다. 참사랑 가족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 근방에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다. 중국, 인도는 물론이요,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도 인구가 2억 명이나 된다. 그래서 그런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교우들이 반복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번에 라틴아메리카 선교사들을 대구가 책임을 지고, 그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서 집중훈련을 시키는데,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도 있고 훈련시킬 장소도 있지 않다. 다민족을 생각하고, 어느 나라를 정할 것인지 마음을 두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백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하나의 과제에만 집착하고 시달리면 안 된다. 이것 해결해야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도 하나님과 맞지 않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니까. 그런 꿈을 꾸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해야 하는 실천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잘 모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흠어지는 실천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말씀의 흐름, 은혜의 흐름 속에서 모이는 응답을 놓치지 마라. 교회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응답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꾸 흠어져야 한다. 그게 현장의 응답이다. 어떤 교회는 이사를 가면 반드시 지교회회를 세운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으다가 담임목사가 방문하면 헌금하고 선교비도 대고 그렇게 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신앙관 자체가, 이사를 가면 거기 있는 교회를 삼기고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거기에서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게 우주적 교회, 코스모스 처치의 비밀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싶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만 해야 한다, 우리한테만 모여야 한다는 생각은 예수님이나 바울의 전도운동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최봉식 장로도 미국 참사랑교회에서 주역 노릇을 하더라. 한 시간 먼저 나가서 영상, 방송 다 손봐주고 하니까, 최 장로 다른 데 못 가도록 목사님이 굳게 붙잡고 있더라. 최집사는 찬양대를 맡아서 또 찬양을 하더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어디를 가도 주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모이는 것과 흠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개념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것은 잘 하는데 흠어지는 것은 잘 못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는 이것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칠 달 된 어린아이처럼 보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그 역사를 보고해 주는 것이 잘 소통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된다.

모이는 교회를 코걸 처치, 흠어지는 교회를 파다 처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 이 두 교회가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부딪혀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새끼줄처럼 꼬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잘 해도 흠어지면 다 사라져 버린다. 자기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숨긴다. 현장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많은 선교단체는 흠어지기는 했지만 지역 교회를 세우는 응답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겐 제아가 점점 들어온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회복해야 한다. 자꾸 모이고 자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제1의 RUTC 운동, 제2의 RUTC운동이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후대에게 전달하고, 흠어져서 현장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흠어진 자, 남은 자,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 안에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참사랑 교회가 이 두 가지 개념을 놓치지 말고, 두 가지 모두를 잘 쌓아가는, 생육하고 변성하라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낸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것인데, 와서 은혜도 받으시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도 보시기 바란다. 오전에는 정회권 선교사님, 오후에는 이종우 선교사님이 오신다. 필리핀 선교의 대가시고, 일본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시다. 선교 보고도 들으시고, 위로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기 바란다.